

# 대입안도 원전처럼 설문조사로… 인기투표 vs 국민소통

(현 중3)

(400명 시민참여단)

## 국민참여형 공론화 방식 정해져 학생·교사·대학이 시나리오 작성 “중립적 공론화에 최선 다할 것”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이 정해졌다.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 대학 등을 포함한 국민이 참여해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짜고,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를 바탕으로 만 19세 이상 4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이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여 최종 공론 결과를 확정한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공론화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추진 방식과 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 가운데 6월~7월 진행되는 ▲공론화 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대입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는 5월까지 진행되는 온·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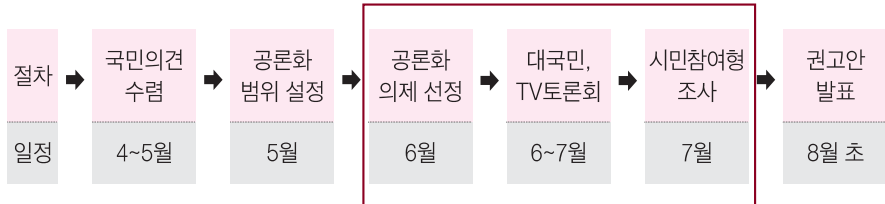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개소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 내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인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범위를 설정해 공론화위에 넘긴다. 공론화위가 7월 공론 결과를 대입개편특위에 보내면 대입개편특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 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교육부에 전

〈공론화 추진방안의 공론화 절차 및 일정〉



공론화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

달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6월부터 진행되는 공론화 의제 선정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해 최종안을 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한다.

최종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이후 7월까지 이에 대한 권역별(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곳) 대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가 별도로 바마련된다. 이들의 의견은 최종보고서에도 담긴다.

토론회 등 국민적 숙의과정을 거친 뒤에는 4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대입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에는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 토론) 등 체계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되는 숙의 자료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국민 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동영상자료도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갖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사·숙의·소통 등 3개 분과를 만들었고, 국민 소통을 전담하는 대변인으로 한동섭 위원을 선출했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오늘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추진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건국대 개교 72주년 기념식이 지난 15일 오전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 건국대 개교 72주년… ‘변화·혁신’ 다짐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는 학원창립 87주년·개교 7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지난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교수와 학생, 동문, 직원, 학교법인 산하기관 임직원, 내외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참석자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유자는 이사장의 기념사, 민상기 총장의 축사, 맹원재 총동문회장의 축사에 이어 근속상, 학술·교육·연구상 시상, 모범상과 학생 선행상·봉사상 수여 등으로 이어졌다.

유자는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학원창립 72주년의 의미와 각종 법인사업체의 경영현황을 소개한 뒤 “우리가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고 계획한다면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항상 먼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를 갖추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상허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경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창학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상기 총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이며 교육자의 삶을 살아오신 상허 유석창 박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미래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다짐의 자리”라며 “취임 이래 쉽 없이 달려온 지난 전반기 시기의 평가와 함께 후반기에는 더 큰 도약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상명학원 설립 81주년 기념식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16일 오전 11시 ‘상명학원 설립 81주년 기념식’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캠퍼스 문화예술관 대신홀에서 개최했다.

학원 설립 81주년, 개교 53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이준방 이사장과 백웅기 총장, 김종희 행정대외부총장, 우제만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 김재현 2캠퍼스(천안)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전 교원과 직원, 내·외빈 등

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상명학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장기근속 교원과 직원 64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준방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과 연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념식에 앞서 스승의 날을 기념해 총학생회 학생들이 스승에게 꽃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한용수 기자

## ‘창업인재 투자’…대학창업펀드 230억 조성

(6곳 선정)

### 정부 75%·대학 등 민간 25% 출자 창업인재 초기 창업자금 적극 지원

대학생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30억의 창업펀드가 조성된다.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대학창업펀드 선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대학창업펀드는 정부가 75%, 대학과 동문 등 민간이 25%를 출자해 대학생 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기존 민·관 창업펀드가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일반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 첫 추진된 펀드에는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등 총 5개 조합을 결성해, 정부가 120억 원을, 대학이 68억5천만 원을 투자해 총 188억5000만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

다. 조합 결성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8개의 대학창업기업에 총 20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 선정된 조합은 부산대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포항공대기술지주, 한양대기술지주 등 대학 기술지주 4곳과 미래과학기술지주, 부산지역·대경지역연합기술지주 등 민간 기술지주 2곳 등 6곳이다.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에는 부산지역 16개 대학과 부산테크노파크,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에는 대구·경북 지역 11개 대학과 경북·대구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이들 6개 조합은 조합 결성 절차를 거쳐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향후 최대 10년 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올해 결성된 펀드 규모는 정부 투자가 작년보다 30억 원 증액된 150억 원으로

늘었고 대학 등 민간 투자가 80억원 등 등 당초 계획(200억)보다 확대된 230억원이다. 올해는 신규 기술지주회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에 100억원, 지난해 선정됐던 기술지주에 50억원을 배정해 선정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 창업 인재들이 초기 창업 자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정된 조합이 창업 동아리,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투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준 대학의 학생창업기업 수는 1191개로, 총 매출액은 143억55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창업기업 수와 매출액이 각각 38.3%, 72.7% 증가했다.

/한용수 기자

## 대학생이 취업하고 싶은 산업, ‘서비스업’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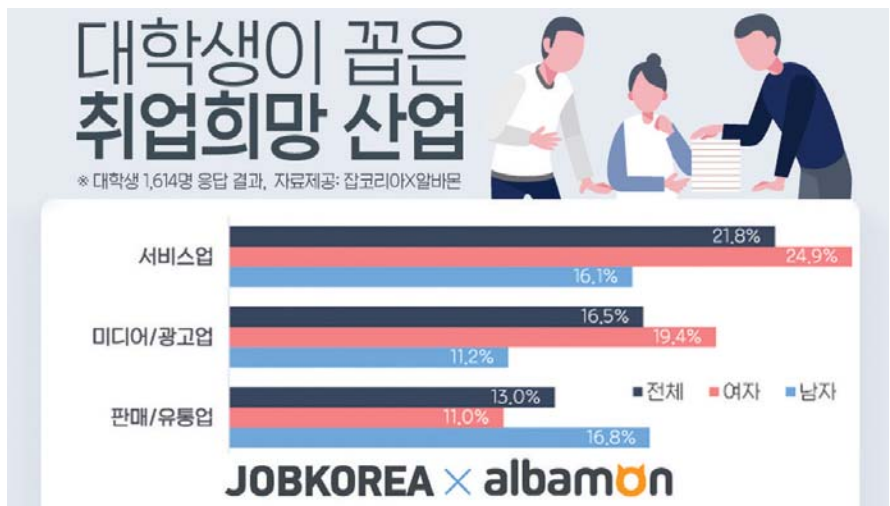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산업 1위에 ‘서비스업’이 꼽혔다. 다만 전공 계열에 따라 희망 산업은 달랐다.

16일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1964명에게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82.2%가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 희망 산업이 있다는 응답 비중은 이공계열 8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계열(83.2%), 자연계열(82.9%), 경상계열(82.1%)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산업은 서비스업(21.8%)이 꼽혔다. 미디어·광고업(16.5%), 판매·유통업(13.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희망 비중이 낮았던 산업은 건설업(2.3%)이었다.

전공에 따라 취업 희망 산업은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은 서비스업(각 33.1%, 32.2%)을 취업



희망 1순위 산업으로 꼽았다. 반면 경상계열 대학생은 판매·유통업(25.4%)을, 이공계열은제조·생산·화학업(31.5%)을, 예체능계열은 문화·예술·디자인업(28.6%)을, 자연계열과 기타계열은 의료·제약업을 가장 취업하고 싶은 산업이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제조·생산·화학업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판매·유통업, 서비스업 순으로 선호했다. 여학생은 서비스업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미디어·광고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한용수 기자